

지각(Crust), 지각(Perception), 지각(Lateness)

최 은 철

한때 단단했던 지층은 부서지고, 퇴적되며, 다시 겹겹이 쌓인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사라진다. 기억 또한 그러하다. 한 시대를 지탱하던 사건과 감각은 시간 속에 퇴적되지만, 일부는 흐려지고, 일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드러난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저장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현재와 뒤섞이며,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 앙리 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1896)

이 전시는 지각(地殼, Crust), 지각(知覺, Perception), 지각(遲刻, Lateness)이라는 세 개의 층위가 수직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연결되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지각(Crust), 쌓이고 깎이는 시간의 흔적

땅이 갈라지고, 다시 포개지는 것처럼, 문명과 기억도 퇴적된다. 우리는 기억을 마치 고정된 형태로 저장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언제나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베르그송은 기억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속(durée)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현재와 교차하는 것이라 보았다. 기억은 과거의 흔적을 품은 채 다시 현재로 회귀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층을 형성한다. 드로잉 시리즈 〈당신이 서 있는 땅 위에〉에서는 빙하와 대지의 대립된 형상이 유동적인 선형들과 함께 화면을 구성하며, 대지의 좌표를 형성하고 가시적인 움직임 을 드러낸다. 빙하는 거대한 시간의 층이며, 대지는 그 위에 쌓이는 사건과 감각들의 흔적이다.

지각(Perception), 낮설고 익숙한 감각의 틈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감각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하지만 감각은 불완전하며, 대상과 인식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틈이 있다. 에른스트 마흐는 〈인식과 오류〉(1905)에서 모든 인식은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하며, 우리가 ‘객관적인 실재’라고 믿는 것조차도 감각들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이미 우리의 감각과 해석을 거친 가공된 형태이며, 오류와 착각 또한 인식의 일부라는 것이다. 드로잉 시리즈 〈극성의 물질〉과 목조 설치작업 〈Kirchenberg〉는 이러한 감각적 착란을 실험한다. 화면 속에서 극과 극의 형태가 대립하며, 조형물의 위아래 위치가 전환됨으로써 관객은 인지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본다’고 믿지만, 실재와 인식 사이의 틈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시장에 놓인 유물들은 지각(Crust) 속에서 끌어올려진 파편들이며, 관객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조합을 통해 기억과 시각을 재구성하게 된다.

지각(Lateness), 너무 늦거나 끝내 도착하지 않는 것들

기억은 언제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불완전하게 도착한다. 어떤 기억은 너무 늦게 떠오르고, 어떤 기억은 예정된 순간이 지나야만 선명해진다. 베르그송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 속에서 사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경험은 단절된 점들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일부 기억들은 끝내 도착하지 않고, 오직 기다림만을 남긴다. 설탕이라는 가변적인 물질로 제작된 오브제들은 환경에 따라 녹아 사라지거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른 형태를 드러낸다. 물질에서 비물질로 향하는 이 과정은 기억의 작동 방식과도 닮아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이곳에 놓인 작품들은 단단한 것과 부서지는 것, 남겨진 것과 사라지는 것의 경계에 서 있다. 발굴 현장이자, 흐려진 지도이며, 때로는 지워지는 기록일 것이다.